

공공체육시설 단계적 개방

익산시, 오늘부터 운영 재개... 예약제 · 인원 제한 등 신분증 · 마스크 착용 등... 샤워장 · 탈의실 전면 폐쇄

익산시가 15일부터 실내 공공 체육 시설을 제한적으로 개방한다. 시는 생활방역지침 준수하에 시설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실내 공공체육 시설을 개방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인근 시군에서 지난달부터 실내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재개했고 코로나19로 인해 생활 체육이 위축된 현실에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개방을 요청함에 따라 시는 지난 4일 열린 감염병 예방 전문가 자문 회의 결과를 반영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설별로 감염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익산종합운동장 내 장애인볼장, 실내인라인스케이트장, 송백정, 용포문화체육센터 등은 15일부터 운영을 재개한다. 국민생활관과 익산문화체육센터, 합

열올림픽스포츠센터의 헬스장은 17일부터 운영하며 수영장과 탁구장, 찜질방, 에어로빅실, 요가실, 스쿼시실 등 나머지 시설은 개방하지 않는다. 위 시설들은 2m 거리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입장 인원을 제한해 운영되며, 이용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변경 운영한다. 감염 위험도가 높은 익산실내체육관(팔봉동) 헬스장 및 지상 1층 배드민턴장 배산 실내 체육관(감동문배드민턴장/모현동)은 17일부터 운영하며 코트별 예약제를 실시한다. 예약은 16일부터 가능하며 사용일 전날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각 시설을 직접 방문해 예약해야 한다. 모든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익산시민만 이용할 수 있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공공 체육 시설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운영될 예정이다. 이용객들은 시설 이용 전에 발열 체크 및 손소독 실시, 입장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감염 위험성이 높은 샤워장과 탈의실은 전 시설 모두 전면 폐쇄하며 모든 시설은 일제 소독을 위해 매주 월요일 휴관한다. 그리고 각종 행사가 열리던 익산 실내 체육관은 집단 감염 위험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 해제 전까지 행사 대관을 중지한다. 시 관계자는 "실내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재개하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조금만 방심하면 집단 감염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운영 초기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시민들께서 운영 지침을 준수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체육시설 관리 부서 또는 민원콜센터(1577-0072)로 문의하거나 익산시 홈페이지(<http://www.iksan.go.kr>)를 참고 하면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학교 내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해요”

익산시, 교고 11곳서 캠페인

익산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시는 지난 12일 시내 지역 고등학교 11곳에서 동시에 등교 시간에 맞춰 비 접촉 방식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홍보했다. 이번 캠페인은 정현을 시장과 국소 단장과 직원 각 학교 등 110여명이 참여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비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익산=장양원 기자

참여자들은 캠페인을 통해 아픈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두기, 30초 손 씻기와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주기적 소독하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수칙 실천을 홍보했다. 특히 장기간 온라인 학습에 이어 최근 학교에 등교한 학생들이 자칫 생활방역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스크 착용과 밀집 공간 방문 자제 등 생활 속 방역 실천 메시지를 전달했다. 현재까지 익산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2명이며 1명은 해외입국자, 1명은 이태원 관련 접촉자로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 감염은 없는 상태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도로 위 동물사체 24시간 수거' 주민만족도 UP

체감형청소행정 모범사례로

군산시에서 전북 최초로 시행중인 '도로 위 동물사체 24시간 수거사업' <시민이 시민들이 민원감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3월 첫시행 이후로 100여건 이상의 동물사체가 수거됐으며 특히 새벽시간과 공휴일에도 전화 한 통으로 즉시 수거처리가 이뤄지고 있어 '시민 밀착형' 청소행정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로드킬 당한 동물사체는 '도로위의 로드킬'이라고 불릴 정도로 위험해 실제로 2차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참혹하게 남은 로드킬 현장을 보는 운전자의 마음 역시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뿐만아니라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시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군산에서 전북 최초로 시행한 도로 위 동물사체 24시간 수거 사업은 주민불편 해소와 아울러 시가지적으로도 매우 적절한 사업추진이라는 주민들의 평가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당직 근무자 및 직원들로부터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신속한 수거처리로 신고자들이 격려의 말을 해주신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청소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택시 · 화물 운수종사자에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군산시가 택시·화물 운수종사자에게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50만원 상당의 기명 기프트카드를 지원하며 호응을 얻고있다. 군산시는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그리고 7월 8일부터 21일까지 2차에 걸쳐 택시·화물 운수종사자 5,540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 상당의 재난지원 전복은행 기명 기프트카드를 지급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승객 및 물동량 감소로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로 택시는 3월 31일, 화물은 2월 29일 기준해 본사 주소가 군산지역에 등록된 택시운수종사자와 전북지역에 주소 둔 군산지역 화물 운수종사자다. 현재 시에 등록된 운수종사자는 택시 1,395명, 화물 4,145명 등 총 5,540명이고 시는 총사업비 27억 원을 투입하는 이 지원사업이 기명 기프트카드

지원방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 접수는 오는 7월 3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제출 기간에 따라 월명체육관 임시 접수처 및 군산시 교통행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법인 및 개인택시 종사자는 회사와 조합을 통해 일괄신청을 받고 있으며, 화물의 경우 법인회사에 위·수탁해 운전하는 운전자는 법인회사를 통해 일괄신청을 받는다. 문의는 군산시 교통행정과 063-454-4322, 4323으로 하면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 어린이 · 청소년의회 발대식 갖고 공식 일정

어린이 · 청소년 의원들이 발대식을 가지며 다양한 활동을 갖고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 군산시는 지난 13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2020년 새롭게 구성된 어린이 · 청소년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시 어린이 · 청소년 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어린이 · 청소년의의 50명에게 의원 임명장 대학생 멘토 8명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하고, 활동다짐 선서 및 기념촬영 순서로 진행됐다. 강임준 시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거리두기 등 불편이 있지만 우리시 모든 아동의 참여권 증진을 위해 참석해 주어 고맙다"면서 "지방자치와 민주시민으로의 역량을 증진하는 소중한 기회인만큼 다양한 의견을 제안해 주면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취소

코로나19로 인해 군산시에서 개최 예정이던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취소됐다. 시에 따르면 오는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군산시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과 사회감염 위험의 지속으로 올해 개최는 취소하기로 결정됐다. 해양스포츠제전은 매년 개최돼 전국적으로 5만여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정식종목인 요트·핀수영·카누·철인3종경기 등을 비롯해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30여 가지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볼거리·즐거거리가 풍부한 행사다. 시는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살리고 천혜의 고군산 군도 및 세계최장 새만금방조제를 활용해 해양레저산업 저변 확대 및 해양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 하고자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유치 성공해 성공적 행사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의 전환점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의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예산활동 '잔결음'

지역정치권 잇단 방문... 홀로그램 산업 등 협치 · 공조 다져

익산시가 국회 방문을 통해 지역정치권과 공고한 공조·협력체계를 다지며 정부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포스트코로나 대비 국비사업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익산시 국가예산 T/F팀 단장인 유희숙 부시장은 지난 12일 국회를 방문해 익산시 김수홍, 한병도 양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북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연고자 있는 국회의원들 10여명을 차례로 만났다. 유 부시장은 제21대 국회의원 취임 축하인사와 함께 지역 당면현안을 설명하고 2021년 익산시 국가예산 50대 중점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을 공유하면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김수홍, 한병도 익산지역 국회의원을 잇따라 찾아 한국관 뉴딜사업의 핵심인 디지털 인프라와 비대면 산업, SOC 디지털화, 그린뉴딜 등 국가

중점사업과 관련해 익산시가 추진 가능한 사업 발굴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의 비대면 산업은 홀로그램 분야가 최종단계일 수밖에 없으며 전국 유일의 홀로그램 기업지원 기관인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지원센터'가 이미 익산에 구축돼 있는 만큼 내년도 △홀로그램 소재부품 실증 개발지원센터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여 미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또한 전북도 국회의원과 면담에서는 다음 달 확정되는 한국관 뉴딜의 실행계획에 국가균형발전과 전라북도 동반성장이 기대되는 대규모 SOC사업으로 광택·익산~울산 간 고속도로 개설사업과 완주~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철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기를 부탁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